논어 16편 계씨 11장 · 원문·풀이

孔子曰：「『見善如不及，見不善如探湯。』吾見其人矣，吾聞其語矣。『隱居以求其志，行義以達其道。』吾聞其語矣，未見其人也。」

독음 · 공자왈 견선여불급 견불선여탐탕 오견기인의 오문기어의 은거이구기지 행의이달기도 오문기어의 미견기인야

쉬운 풀이(요약) · 선함을 놓칠까 서둘러 따르고 악함을 뜨거운 물처럼 피하는 이는 보았다. 숨어 뜻을 지키고 의를 행해 도를 이루는 이는 말로 들었지만 만나지 못했다고 했다.

AI가 원문을 대조해 작성한 학습용 요약입니다. 해석이 갈리는 구절은 다른 풀이도 있습니다.

글자 뜻과 음(대표 훈음 · 문맥별 독음은 위 본문 참고)

孔 구멍 공 공 / 子 아들 자 / 曰 가로 왈 / 見 볼 견 견

善 착할 선 선 / 如 같을 여 여 / 不 아닐 불 / 及 미칠 급 급

探 더듬을 탐 탐 / 湯 물 끓일 탕 탕 / 吾 자기 오 오 / 其 그 기

人 사람 인 / 矣 어조사 의 / 聞 들을 문 문 / 語 말씀 어 어

隱 숨을 은 은 / 居 살 거 거 / 以 써 이 이 / 求 찾을 구 구

志 뜻 지 지 / 行 다닐 행 행 / 義 옳을 의 의 / 達 통달할 달 달

道 길 도 도 / 未 아닐 미 미 / 也 어조사 야

저본: 위키문헌 論語 · 편별 고정 판본과 전체 교정 기록은 출처 페이지를 참고하세요.